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대구시 거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Housing Environment of Marriage Immigrants in Daegu City

김진희*
Kim, Jin-Hee

안옥희**
An, Ok-Hee

조영미***
Jo, Young-Mi

Abstract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settlers in our country, a societal system is needed which they can adapt to more easil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ult of analyzing the 171 program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could be seen that in order for the marriage immigrants to more successfully adapt, various programs are needed. Second, when the study had an interview with 13 marriage immigrants from China, Vietnam and Philippine about their adaptation to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had a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hen their spouses' educational level was high. In<estimation on residential environment>, they appraised that South Korea was superior to their native land in scale and facilities of buildings and the buildings of their native land were superior to those in South Korea in terms of soundproof applications,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which were indoor environmental elements. Third,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y stated that it took 6 months~ two years to adapt to the Korean residential environment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mpared to their homeland. A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e housing adviser is necessary in the marriage immigrants.

Keywords : Marriage Immigrants, Housing Environment, Case Study

주요어 : 결혼이민자, 주거환경, 사례연구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외국인 이주의 증가와 함께 기존 우리문화 스펙트럼 속에 없었던 이질적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인구집단의 유입에 따른 이른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단순한 인종적 다양성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특히 국제 결혼 이주여성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되어 2007년에 10만을 넘어 2008년에는 127,68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09). 즉 한국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우리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다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회원(주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사졸업
**정회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학술박사
***정회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주거학회의 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결혼이민자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계획하는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인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총괄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나라별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주거환경에 대하여 파악하여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지원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평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II. 이론적 고찰

1. 결혼이민자의 현황

2009년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보고를 보면, 1995년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건수는 3.4%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11.5%로 나타난다<표 1>. 한편, 최근 2~3년 동안 국제결혼의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에고로 중국교포의 국내입국 및 취업이 용이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표 1. 국제결혼 현황(총건수)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건수	백분율
1995	398,484	13,494	3.4
2000	334,030	12,319	3.7
2001	320,063	15,234	4.8
2002	306,573	15,913	5.2
2003	304,932	26,658	8.4
2004	310,944	35,447	11.4
2005	316,375	43,375	13.6
2006	332,752	39,690	11.9
2007	345,592	38,491	11.5

자료: 국가통계포털(인구동태), 2008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 출신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국(49.8%)과 베트남(27.3%)이 77.1%를 나타내며, 다른 나라는 모두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대상인 대구시의 경우도 전국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중국(43.2%)과 베트남(32.4%)출신이 75.6%를 차지하였다<표 2>.

2. 결혼이민자의 적응과 문제점

대구경북연구원(2008)의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차적 갈등은 언어로 인한 문제에서 비롯된다.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면 해소할 방법이 차단되어 더욱 심

각한 갈등양상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본국에서의 저학력 여성인 경우,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다. 학습 진도의 부진함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언어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립되거나 우울증을 동반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문화적 갈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전통문화, 생활패턴, 의식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갈등이 더욱 커진다. 특히 본국에서는 겪지 못한 한국의 시대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적응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갈등양상은 첨예화된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의 분리로 인한 문화적 갈등은 여성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부부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분담은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의 갈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기후적 환경, 국민성 등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생활패턴 역시 차이가 나타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일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및 갈등요인 또한 한국사회의 적응 및 통합을 돕기 위한 연구들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다.

주거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는 단위주거의 편리성, 주거의 관리상태 등의 물리적 측면과 주택소유 형태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과 인간 사회적인 요인은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용중, 최태량, 1994).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은 경제생활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에 점차적으로 향상되기도 한다. 즉 주거환경은 생활의 풍요로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의·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소로서 불량한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최용규, 2001).

문화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습하며 배워

표 2. 국적별 국제결혼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기타	합계
외국인 부인	전국	1,665 (5.7)	14,526 (49.8)	377 (1.3)	1,531 (6.0)	6,611 (27.3)	531 (1.6)	156 (0.8)	745 (5.6)	2,998 (9.1)	29,140 (100.0)
	대구	21 (2.3)	393 (43.2)	8 (0.9)	31 (3.4)	298 (32.4)	34 (3.7)	12 (1.3)	17 (1.8)	107 (11.0)	921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인구동태), 2008

1)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행복이라는 주관적 개념보다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한정된 개념으로서 외부의 객관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이때 물리적 여건 및 비물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한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여 바로 동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습득해온 문화를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익힐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생활습관이 다른 데서 오는 생활방식의 차이와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를 그대로 야만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유용식, 2008).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설동훈, 윤홍식, 2005).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온 기간별로 동화주의 혹은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화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비율을 보면 한국에 온지 1~2년 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다원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년 미만의 경우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한 1~2년 경과된 사람들의 경우는 모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4년 경과자의 경우는 다시 동화주의가 강세이고 5년 이상이 되면 다원주의가 조금 증가한다(고숙희, 2008).

이에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로 이루어졌다.

1. 조사대상 및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관련된 지원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현황을 살펴보는 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0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171개의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는 대구광역시 거주하고, Y대학교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리더스쿨' 수강생 중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총 13명²⁾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2) 일본 결혼이민자 2명,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1명에 대한 조사도 하였으나, 일본은 다른 대상국과 달리 선진국이라는 점과, 캄보디아는 1명의 사례수라는 점에서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음.

표 3. 결혼이민자들의 특성

본국	결혼이민자	연령	이민년수	거주지역
중국 (China)	C-1	40세	5년	대구시 북구
	C-2	31세	6년	대구시 달성군
	C-3	29세	5년	대구시 서구
	C-4	31세	8년	대구시 서구
	C-5	29세	7년	대구시 서구
	C-6	28세	7년	대구시 서구
베트남 (Vietnam)	V-1	24세	4년	대구시 남구
	V-2	26세	5년	대구시 달서구
	V-3	27세	6년	대구시 북구
	V-4	26세	4년	대구시 달서구
	V-5	26세	5년	대구시 서구
필리핀 (Philippines)	P-1	27세	5년	대구시 동구
	P-2	29세	5년	대구시 달서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차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한국에 이민 온지 최소 4년 이상인 자로 주거환경 적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분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2010년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분석은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센터에서 실시중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면담조사는 1인당 평균 30분 정도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여 면담이 끝난 후 전사하고 현장노트와 함께 분석하였다.

2. 면담조사의 내용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거환경에 부여하는 의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사항, 주거환경에 관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초하여 개방형 질문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표 4>, 주거환경 적응사례는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뷰의 내용은 각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질문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표 4. 조사항목

구분	질문 내용
일반적 사항	생활수준, 본국과 한국의 생활수준 비교, 나이, 한국에 온 나이, 한국생활 만족도, 만족사항, 불만족사항, 남편의 학력과 직업 등 총 9개 문항
주거에 관한 일반적 사항	본국의 주거생활, 이사여부, 거주형태, 주택선호형태, 주거생활 적응정도, 프로그램 참여여부, 주거생활 만족도, 주거생활 불편사항 등 총 8개 문항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방의 수, 방의 크기,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음, 채광, 환기, 내부실내장식, 재난으로부터 안전, 주변교통 등 총 10개 문항

IV. 결과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과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를 위한 기구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2006년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2006년 5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대책 주관부처로 여성가족부(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은 <표 5>와 같다.

2006년도에 21개 센터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8년에 80개소이었던 것이, 2009년에 20개소가 신규로 승인받아 2009년 100개소, 2010년 3월 기준 171개소가 운영 중이다. 센터의 선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복 설치를 배제하고, 시·군별 결혼이민자 수, 센터간 거리, 시·도 추천 우선순위, 기존 이민자 관련 활동기관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다.

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08년	4	3	3	3	2	2	1	9
2009년	-	1	1	-	-	-	1	1
2010년	16	3	2	4	1	0	1	14
계	20	7	6	7	3	2	3	2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8년	6	5	5	7	10	10	9	1	80
2009년	2	2	2	2	3	3	2	-	20
2010년	4	3	8	5	3	3	3	1	71
계	12	10	15	14	16	16	14	2	171

자료: 보건복지부(사전정보공표자료), 2010.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표 6>과 같다.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취·창업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사업 외에 지역사회의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센터의 필요에 의해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 인력양성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종료 후 매 사업 프로그램마다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된다.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사업 중 한국어교육과 한국요리강습을 중점적으로 시행한 기관이 많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나 복지서비스, 각종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알선 등과 관련된 사업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가장 기초적인 주거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는 1곳도 없었다.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읍단위 이하의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표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예

지원 프로그램	과정명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과정 등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등
	가족상담	자녀교육, 개별·집단·가족상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
취·창업지원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 향상교육, 영농기술교육 등	
기타사업	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
	정서지원	한국여성들과의 멘토링(멘토-멘티 맺기), 동아리활동 발표, 모국문화소개 등
	결혼이민자역량강화	상담원양성과정, 다문화강사양성, 컴퓨터교육, 공예기술교육 등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 축제, 다문화이해교육, 캠페인 등
	전문인력양성사업	강사보수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등

본국의 주거환경과 다른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타사업으로 주거환경 적응 프로그램이나 적응을 돕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결혼이민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생활에 대한 사항

본 연구대상자인 결혼이민자들은 남편을 소개받은 후 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남편은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본인들은 결혼식 후 평균 2~3개월 후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

남편의 교육수준은 주거환경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표현영(2004)은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서광희, 조병은(1993) 또한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이 교육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수준의 증가는 의사소통을 할 때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의 폭을 넓혀주므로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갈등을 감소시키며 결혼적응도를 높게 된다. 이에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총 13명 중 고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자영업이 2명, 사무직이 2명, 비전문직 7명, 무직이 2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은 없었다.

(2) 본국과 한국에서의 생활수준 및 한국생활의 만족정도

본국과 한국의 생활수준은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양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의 만족사항에서도 <생활환경>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사항 보다는 불만족사항이 더 많았는데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 <임신의 강요>, <음식문제>, <문화

차이>, <편견과 선입견>, <자녀양육>, <생활형편> 등으로 불만족 사항은 다양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은 가족들이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만 들고 싶어 한다고 느끼고 이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였 으며, 시어머니의 경우 임신문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 다. 김형균, 이주연(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간 섭을 하는 사람은 보통 시어머니나 시누이이며, 간섭의 범위는 생활 전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댁의 간섭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은 한국이 문화적으로 자신의 모국과 다르다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이 힘이 없는 약자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고 하였다.

2) 주거생활의 일반적 사항

(1) 한국에서의 이사에 관한 사항

월평균 소득, 남편의 직업, 남편의 교육수준으로 평가되 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환경개선이나 이 주를 하여 주거적응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 구대상자의 경우 주거생활의 일반적 사항 중 <환경개선> 을 이유로 이사를 한다는 경우는 1명밖에 없었으며, <남 편의 회사 이직>, <시부모님으로부터 분가>로 인하여 이 사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주생활의 불편을 느끼 지만 주거적응을 위하여 이어나 개조를 하기 보다는 주 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춰 그냥 살고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 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호하는 주택유형

주택유형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옥>, <양옥>, <아파트>, <빌라>로 나누어 질문을 하였다. 결혼이민자들 은 한국에서의 주택유형으로 <한옥>의 선호가 높았으며, <아파트>를 가장 기피하였다.

총 13명의 연구대상자 중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은 7명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아파트 내 소음문 제와 이웃과의 관계, 관리비 등의 이유로 한옥을 선호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평가

1) 한국 주생활의 만족과 불만

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의 주생활과 비교하여 한국 주생활 의 만족 부분은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집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없어 더우면 창문 을 열고, 난방을 해도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어 우리나라 개별 난방시설을 특히 만족한다고 하 였다. 불만사항은 <공간크기>와 <소음>, <집의 위치>, <채 광> 등에 관한 부분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방의 수가 부 족하다고 하였으며, 방의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이 어려 우며, 특히 방음이 미흡하여 아이들을 키우는데 소음문제 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방음은 일반주택 보 다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 었다. 윤재웅, 신혜정, 황보임주(2000)는 평수가 넓어질수

록 방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주택의 채광은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이 밀집해 있 어 일사량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주택의 규모, 주택의 소유형태, 방당 거주인수는 주생활 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결혼이민자들 은 주택의 평수가 작을수록, 주택의 소유형태가 자가가 아니거나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 내부공간 환경에 불편 을 느꼈다. 그러므로 주거에 불만이 있을 때 이어나 리모 델링 등의 적극적인 주거적응행동을 취해 적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평가

결혼이민자의 본국과 한국의 주거환경에 관하여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각각의 항목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 에 따라 <매우적당> 5점에서 <매우부족> 1점으로, 5점 리커트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주거환경 평가

		방의 수	방의 크기	난방 시설	급배수 시설	방음	채광	환기	내부 실내 장식	재난 으로부터 안전	주변 교통
C-1	본국	2	2	1	1	3	3	5	4	2	3
	한국	3	4	4	4	2	3	3	5	5	3
C-2	본국	2	3	3	3	3	3	4	3	2	3
	한국	2	4	5	4	2	3	2	3	2	4
C-3	본국	2	2	2	2	3	3	4	1	3	3
	한국	3	3	5	5	2	4	2	5	2	3
C-4	본국	3	5	3	1	2	5	4	3	2	3
	한국	3	2	4	5	1	3	3	5	4	3
C-5	본국	2	1	2	1	3	3	3	4	3	1
	한국	1	4	4	4	3	3	3	4	1	4
C-6	본국	3	2	1	3	3	3	5	3	2	3
	한국	3	3	5	5	3	3	3	4	3	4
V-1	본국	1	2	3	2	5	5	5	1	2	1
	한국	2	3	5	5	2	3	4	3	1	3
V-2	본국	1	3	3	3	5	3	4	2	3	3
	한국	3	3	4	5	3	3	2	5	2	4
V-3	본국	2	3	3	3	3	4	5	2	2	2
	한국	1	3	5	5	4	3	2	5	3	3
V-4	본국	3	3	3	2	3	5	4	2	3	3
	한국	4	4	4	5	2	3	1	3	4	4
V-5	본국	3	2	3	1	3	3	3	3	2	1
	한국	3	3	3	3	3	3	3	3	3	5
P-1	본국	3	3	3	2	5	5	3	2	1	3
	한국	2	2	4	5	3	1	2	5	5	5
P-2	본국	2	2	3	3	2	5	5	3	3	3
	한국	2	3	3	3	4	4	3	4	2	3
평균	본국	2.23	2.54	2.54	2.08	3.31	3.85	4.15	2.54	2.31	2.46
	한국	2.46	3.15	4.23	4.46	2.62	3.00	2.54	4.15	2.85	3.69
유의차				***	***		*	***	***		**

***p<.001, **p<.01, *p<.05

결혼이민자의 본국과 한국의 주거환경에 관한 10개의 평가항목 중 <급배수시설>이 본국은 평균 2.08점, 한국은 평균 4.46점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방의 수>에 관한 항목이 본국은 평균 2.23점, 한국은 평균 2.46점으로 차이가 가장 적어 본국과 한국에서 모두 방의 수가 부족하다고 결혼이민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또 본국과 비교하여 <방의 수>, <방의 크기>,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내부 실내장식>, <재난으로부터 안전>, <주변교통> 등은 한국의 평가가 높으며, <방음>, <채광>, <환기> 등은 본국의 평가가 높았다. 즉 대체로 건물의 규모와 시설에 관련한 난방시설, 급배수 시설, 내부 실내장식 등은 한국의 주택이 좋으나, 실내 환경 요소인 방음, 채광, 환기 등은 본국의 주거환경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본국과 한국의 평균점수를 t-test한 결과, 난방시설과 급배수시설, 환기, 내부실내장식은 $p < .001$ 의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주변교통은 $p < .01$, 채광은 $p < .05$ 의 유의차를 보이고 있어 주거환경 대부분이 본국과 한국이 많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4.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사례

1) 중국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 결혼이민자들은 중국에서의 주거환경과 현재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의 만족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C-1은 중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시어머니, 남편, 아들 2명, 총 5명이 아파트 생활을 한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을 비교하니 난방시설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나는 중국의 그래도 잘사는 곳...하얼빈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주거환경 비슷해요. 하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보일러, 온돌...난방시설이 좋아요. 중국은 추우면 아파트 전체...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불편해요. 한국은 집마다 사용할 수 있어요.” (C-1)

중국과 한국의 주거환경의 차이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C-2는 중국에서 시골 생활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남편, 딸과 함께 3명이 생활한다.

“사는 정도나 주거환경이 중국보다 좋아요. 만족해요. 한국 오래된 집이라도 주거환경은 내가 살았던 집보다 좋아요. 중국 경우는 집안에서 신발 신고 생활해요. 잠자는 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높아요. 잠자는 곳 신발 벗고 들어가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생활해요. 한국 집은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손님이 오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발 냄새가 나요. 또 중국은 거실이 없거나 아주 작아요. 부엌을 거실과 따로 사용해요. 하지만 한국 집은 거실과 부엌을 같이 사용해요. 특히 음식 할 때 나오는 냄새

때문에 중국보다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C-2)

C-3은 중국에서 2층 주택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총 4명이 3층 연립주택에서 생활한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을 비교하니 중국보다 한국이 각종 기구사용이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 후에는 생활하기 편리하다고 하였다.

“생활하기에는 중국보다 한국이 좋아요. 편해요. 처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익히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잘 만져요. 한국 온 지 5년 되었는데, 이제는 중국 집이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한국은 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C-3)

C-4는 중국에서 시골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시부모님, 남편, 아들, 딸, 총 6명이 아파트 생활을 한다. 아파트생활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시골집에 살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데.....처음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집이 9층인데 처음에는 맨 날 계단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작은 소리도 다 들려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있는데 남자애라서 집에서 많이 뛰어요. 그런데 조금만 뛰어도 밑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C-4)

C-5는 중국에서 시골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남편, 딸 2명, 총 5명이 생활한다. C-5는 중국과 주거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특히 온돌이 좋다고 하였으며, 아파트의 벽이 얇아 방음시설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였다.

“중국은 겨울 되면 추워요. 중국에서는 바닥에 난방시설이 없어요. 벽 쪽에 난방기구가 있는데.....난방기구 근처는 따뜻하데 멀어지면 추워요. 한국은 온돌...맞나요? 바닥이 따뜻해서 좋아요.” (C-5)

“한국아파트는 벽이 너무 얇아요. 중국에서는 벽이 두꺼워요. 한국은 기술도 좋은데 집을 왜 이렇게 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은 집을 부수기가 쉬운 것 같아요.” (C-5)

C-6은 중국에서는 1층 주택에서 생활하였고, 한국에서는 2층 양옥에서 남편, 아들과 총 3명이 생활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집이 좁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인테리어 차이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한국은 벽지를 사용하나 중국은 주택의 내벽에 페인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한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요. 중국은 나라에서 집을 주는데 한국은 돈 주고 집을 사야하는데 너무 비싸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그리고 벽의 경우 한국은 벽지를 바르는데 중국은 습기가 많아 벽지를 하면 잘 떨어져서 보통 벽에 페인트칠을 해요.” (C-6)

이상과 같은 면담결과, 중국의 결혼이민자 6명은 중국

에서의 주거환경보다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6개월~2년이 걸렸으며, 이민 온 이후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실내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한국의 기거양식으로 인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나 각종 기구의 사용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다. 또한 방음이나 방의 면적 등에 불만이 있으나 온돌과 같은 난방시설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2) 베트남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은 현재 한국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베트남과 한국의 주거환경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가난했어요. 주거환경이 한국보다 별로였어요. 지금이 아주 좋아요” (V-1)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해서 난방시설이 필요 없어요. 한국은 날씨가 차이가 있어요. 특히 겨울이 추워요. 하지만 난방시설은 좋아요. 난방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기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아요. 또 베트남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고, 나무침대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이거 적응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또 한국 집은 신발을 벗고 생활해야 해서 청소를 너무 자주 해요” (V-1)

“베트남은 가스렌지 등이 잘 없어서 나무를 사용해서 요리해요. 그래서 냄새, 연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엌은 짐과 떨어져 있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어요” (V-2)

V-3은 베트남과 한국의 주거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베트남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한국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였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형제자매 3명은 학교도 못하고 일했어요. 한국 오면 좋다고 해서 한국 왔어요. 내가 살았던 마을에 아는 사람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한국으로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자꾸 물어도 봤어요.” (V-3)

V-4는 베트남에서 시골에서 생활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층 양옥에서 시부모님, 남편, 시동생, 아들과 6명이 생활한다. 베트남에서 침대생활을 했으나,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께서 바닥취침을 강요하여 속상하다고 하였다.

“베트남은 자는 방안에 나무침대가 있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한국 오니깐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못 자게해요. 내가 임신했을 때 침대에서 자면 아기한테 좋지 않다고 바닥에서 자라고 했어요. 집에 침대가 있는데도 못 자게해서 속상했어요.” (V-4)

V-5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으며, TV의 내용과 한국의 실제생활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베트남에서 결혼식하

고 먼저 한국 갔어요. 나는 3달 있다가 한국 들어왔어요. 남편은 한국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좋아했는데.....TV랑 우리 집은 달라요” (V-5)

이상과 같은 면담결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5명은 현재 한국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나 주거환경의 차이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1~2년이 걸렸으며, 이민 온 이후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접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특히 실내에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바닥 취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나 부엌시설이 좋다고 하였다.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을 비교하니 <난방시설>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는 대답을 5명 모두 하였다. 이는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하여 난방시설이 없는 반면, 한국은 겨울에는 추워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필리핀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필리핀에서의 주거환경과 현재 한국에서의 주거환경의 만족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주거환경의 차이여부에 대한 의견은 다음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한국 집에 만족해요. 처음에는 달라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필리핀 집은 나무인데, 주택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겨울에 춥잖아요. 보일러 사용하는 거 한국 와서 처음 봤어요” (P-1)

“필리핀은 한 공간에 주방, 화장실이 있었는데 한국 집은 방이 나누어져 있어서 좋아요. 필리핀은 시끄러워도 별로 신경 안 쓰요. 하지만 한국은 시끄러우면 안돼요. 그리고 물 나오는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필리핀은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이용해요” (P-2)

이상과 같은 면담결과, 필리핀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주거환경에 적응하는데 2년이 걸렸으며, 주거환경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기후가 달라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한국의 주택은 공간 구획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다고 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분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수행하여,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주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전통문화교육, 지

역생활정보제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보다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은 총 13명 중 고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비전문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은 없었다. <본국에서의 생활수준과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은 본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생활수준이 “양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한국생활의 만족정도>에서는 가장 만족하는 사항으로 “생활환경”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주거환경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득과 같은 성취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고, 결혼 만족 또한 교육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거환경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에서의 이사에 관한 사항>에서 “환경개선”을 이유로 이사를 한다는 경우는 1명밖에 없었으며, “남편의 회사 이직”, “시부모님으로부터 분가”로 인하여 이사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에서는 한국에서의 주택유형으로 “한옥”의 선호가 높았으며, “아파트”를 가장 기피하였다. 그 이유는 아파트 소음문제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관리비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생활의 만족과 불만>에서는 본국 주생활과 비교하여 한국 주생활의 만족한 부분으로 “난방시설”, “급배수시설”을 대답하였고, 불만은 “공간크기”와 “소음”, “집의 위치”, “채광” 등에 관한 부분이 많았다.

넷째, <주거환경의 평가>에서는 본국과 한국의 주거환경에 관한 10개의 평가항목 중 “급·배수시설”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고, “방의 수”에 관한 항목이 차이가 가장 적어 본국과 한국에서 모두 방의 수가 부족하다고 결혼이민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또 본국과 비교하여 “방의 수”, “방의 크기”,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재난으로부터 안전”, “내부 실내장식”, “주변교통” 등은 한국이 잘 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방음”, “채광”, “환기” 등은 한국보다 본국이 잘 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3개국 13명의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 적응에 대한 면담결과, 대체로 한국의 주거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나, 본국의 주거환경과의 차이로 인하여 6개월~2년 정도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중국출신들은 난방시설 등 설비가 좋으나,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으며, 엘리베이터나 각종 기구의 사용방법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였다. 베트남출신들 역시 난방시설 등 설비가 좋으나,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침대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필리핀출신들은 공간 구획이 잘 되어 있고 시설은 좋으나 기후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전통문화교육, 지역생활정보제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석주와 이상목(2010)은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남편교실³⁾이나 정보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환경 적응은 이주해 온 출신국의 문화, 관습 및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들이 정주하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태도, 그리고 지역사회 의 포용력에 따라서도 결혼이민자들의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 양상도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적응을 돕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거환경전문가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결혼과 함께 이제까지 자신이 익숙해있던 질서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환경에 처하게 된 결혼이민자들은 본인과 관련한 정보에 관한 지식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먹고 자는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에서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환경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결혼이민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각 나라별 주거환경 특성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거환경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선의 형태지원이나 공간사용형태, 마감재 선택 등이질감을 느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주거환경에 관한 조언자를 지원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적 측면에서 적응과 갈등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언어, 관습,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에서 오는 적응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생활세계가 가정에 한정되지 않고, 설사 이주 초기에는 가족과 가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활공간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공간 스케일에서 적응 문제를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구조를 포함한 주생활환경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적응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소수의 중국, 베트남, 필리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

3)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 쪽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타문화의 배경 속에 살아온 부인을 이해하고 문화를 배워나가는 프로그램

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고숙희 (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2. 김형균·이주연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사회적 통합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학회 06-08, 189-221.
3. 대구경북연구원 (2008. 10). 대구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4. 서광희·조병은 (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97-120.
5.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7-265.
6. 유용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입국 및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7(2), 138-145.
7. 윤재웅·신혜정·황보임주 (2000).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1(4), 65-75.
8. 이용중·최태량 (1994).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 서울: 범론사
9. 조석주·이상목 (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65-88.
10. 최용규 (2001). 청원군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지적정보학회, 3, 144-158.
11. 표현영 (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경상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남원.
12. <http://kosis.kr/index/index.jsp> 국가통계포털, 온라인간행물, 인구동태(2008)
13. <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결혼이민자 현황.
14. <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자료,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접수일(2010. 10. 21)
 수정일(1차: 2010. 12. 21)
 게재확정일(2011. 1. 18)